

빛자루

나는 정자 위의 빛자루
쓱쓱 싹싹
소리를 쓴다.

정자 위에 노부부가 올라와 앉고
나는 몸을 비스듬히 기울인다.

할머니: “거기 누워요.”

할아버지: “내가 애도 아닌데 왜 누워요”

할머니: “애지,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지”

할아버지: “자꾸 깜빡깜빡해 그 뭐라카노..”

할머니: “내가 봐줄게요 편하게 누워있어요”

할아버지: “그그, 그 뭐야, 이이이이런말을 안써야하는데
ㄱ- 뭐라카노..”

할머니는 두 손을 작게 모아 목주알을 굴린다.

나는 빛자루
몸을 일으켜 소리를 쓴다.
쓱쓱
잠시 동안 생긴 진공이
싹싹
소리를 굴린다.
쓱쓱 싹싹
빈 공간에 바람이 들어와
소리알을 옮긴다.

소리알이 구른다
멀리 굴러간다.